

강정호 뛰었더라면...



7일(이하 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진행된 시카고 컵스와 피츠버그 파이리츠 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시작에 앞서 강정호(피츠버그)가 휠체어를 탄 채 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츠버그, 와일드카드 결정전 0-4 아쉽게 저

휠체어 탄 강정호 등장에 홈 관중들 기립박수

휠체어를 탄 강정호(28)가 그라운드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PNC 파크를 가득 메운 팬들이 박수를 쏟아냈다. 불의의 부상으로 포스트시즌 무대에 서지는 못했지만 강정호는 팬들의 환호에 밝은 표정으로 답했다. 피츠버그는 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미국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앞두고 선수 소개를 했다.

이때 강정호의 이름이 불렸다. 강정호는 휠체어에 의지하긴 했지만 피츠버그 유니폼과 모자를 쓰고 팬들 앞에 나타났다. 팬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강정호는 오른손을 흔들었다. 강정호가 선수단이 모여 있는 곳에 도착하자 클린트 허들 감독은 가벼운 포옹을 하기도 했다.

강정호는 9월 18일 PNC 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홈경기에서 왼 무릎을 다쳐 수술대에 올랐고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컵스 크리스 코글란이 강정호가 공을 제대로 1루에 던질 수 없도록 2루 베이스가 아닌 강정호의 왼쪽 무릎을 겨냥해 슬라이딩했고 강정호는 왼쪽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및 반월판 파열, 정강이 뼈 골절이 겹친 큰 부상을 당했다. 6~8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강정호는 올 시즌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을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 연착륙했다. 피츠버그는 포스트시즌 진출을 일군 공신 중 한 명으로 강정호를 지목했고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강정호를 초청했다. '팀 승리에 공헌한 주전 선수'를 향한 팀의 예우였다.

하지만 강정호의 응원에도 팀은 0-4로 저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다.

올 시즌 강력한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인 제이크 아리에타(시카고 컵스)가 경기를 지배했다. 정규시즌서 22승 6패, 평균자책점 1.77, 236탈삼진, 229이닝, 완투 4회로 다승 1위, 평균자책점 2위, 삼진 3위, 이닝 2위, 완투 1위에 올라 있는 아리에타는 1회말 2사 후 앤드루 매커전에게 단타를 내줬을 뿐 5회말 첫 타자 프란시스코 세르벨리에게 몸에 맞는 공을 줄 때까지 10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했다.

9회까지 마운드에 오른 아리에타는 매커전, 마르테, 세르벨리로 이어진 피츠버그 클린업 트리플을 차례로 돌려세우고 아웃카운트 27개를 직접 채웠다. 그는 이날 9이닝 4피안타 1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완봉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광주대 여자 농구 전국대회 준우승

광주대(총장 김혁중) 여자 농구부가 전국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광주대는 지난 7일 용인대 체육관에서 열린 '2015 남녀대학농구리그' 여자부 결승 최종전에서 용인대에 56-65로 아쉽게 패해 준우승했다.

정규 리그 2위(8승4패)인 광주대는 1위 용인대(10승2패)와의 결승전(3전 2선승제)에서 먼저 첫승을 따냈지만 2·3차

전에서 패했다. 광주대는 이날 2쿼터까지 10점차(29-39)로 뒤지다 3쿼터 들어 강한 압박 수비를 펼치면서 3쿼터 종료 직전 46대 45로 경기를 뒤집었다.

하지만 막판 선수들 체력이 떨어지면서 역전을 허용한 뒤 뒤집지 못하고 경기를 끝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r



노련함으로 시즌 마친 KIA 에이스 양현종

“아프지 않겠다”

어깨 부상에 피하는 투구 자존심 상해 에이스 부담감 컸지만 많이 배운 시즌

평균자책점 2.44, 15승6패, 184.1이닝, 157탈삼진, 19 퀄리티스타트. 올 시즌 자신의 최고의 성적을 쓰고도 “아쉽지만 하다”는 KIA 에이스 양현종이다.

당당하게 성적을 써낸 올 시즌이지만 100%의 모습은 아니었다. 가슴 시원하게 미트를 파고들던 직구 대신 유혹의 변화구가 눈에 띄었고,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 는 장면도 많았다.

그럼에도 양현종은 어려웠던 팀 마운드에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며 KIA 유일의 타이틀 홀더(평균자책점 1위)로 이름을 올렸다. 내년이면 10년차가 되는 양현종의 경험이 빛을 발한 한 해였다.

“팀이 가을 전지를 못해서 아쉽지만 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양현종은 “어깨가 좋지 않아서 올 시즌 고생을 많이 했

다. (어깨가 아파서) 내가 던지고 싶은 것을 못 던진 것도 있다. 어쩔 수 없이 피해야 하는 피칭을 하기도 했는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팀 마운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부담감도 컸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배운 한 해다. 어깨가 아프지 않은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몸관리 잘하면서 내년 시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자신있게 마운드에 서겠다”고 밝혔다.

실력에 노련미까지 더해 한 단계 성장한 양현종은 팀을 이끌어가는 대표선수로도 한 발 나아갔다. ‘막내딸’의 애정으로 사랑을 받았던 마운드의 막내는 어느덧 팀을 대표하는 투수이자 후배들을 이끌어가는 든든한 선배가 되어있었다.

양현종은 “벌써 10년차가 된다. 이제 는 내가 조연만 들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

“당당히 받겠다”

평균자책 2.44·15승·184.1이닝·157탈삼진... ‘최동원상’ 2연패 유력... “골든글러브 욕심 안내”

다. 오래 막내 생활을 했는데 패전처리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어린애들이 많이 왔고, 내가 그 나이 때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안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후배들이 좋게 받아주면 좋겠다. 그 마음 해본 사람이 아는 것이다”고 선배 양현종의 입장을 말했다.

어려움도 많았고 아쉬움도 있지만 올해는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양현종. 초대 최동원상 수상자인 양현종을 올 시즌에도 가장 유력한 수상자 후보다.

양현종은 30경기, 180이닝, 15승, 150탈삼진, 15 퀄리티스타트, 평균자책점 2.

50이라는 수상 기준을 완벽하게 채우면서 시즌을 마무리했다.

양현종은 “평균자책점 1위는 했지만 워낙 해커(NC)가 좋은 성적을 기록해서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기본 마음으로 축하객으로 갈 생각이다. 대신 최동원상을 받는다면 지난해보다 당당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해에는 열떨결에 상을 받아서 민망하기도 했었다. 올 시즌에도 기회가 된다면 수상 기준을 채우고 멋있게 받게 받는 생각이었는데 목표를 이뤄서 다행이다”고 밝혔다.

어려운 속에서도 노련미로 풀어갔던 한 시즌, 예쁜 딸까지 얻으면서 ‘성숙의 한 해’를 보낸 양현종이다. /김지을기자 wool@kwangju.co.kr



“설욕” 2년만에 재격돌 “수성”



정규시즌 3위 자리를 놓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싸운 두산 베이스와 넥센 히어로즈가 '수순대로' 준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한다.

넥센은 지난 7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5-4로 승리하며 준플레이오프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패하면 2차전까지 치러야 했던 넥센은 단판 승부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끝냈다. 큰 출혈 없이 두산과 맞붙을 수 있다.

넥센에게 이번 준플레이오프 테마는 설욕이다. 당연히 두산은 수성을 목표로 한다.

두산은 올해 정규시즌에서 79승 65패로 3위에 올랐다. 넥센은 78승 1무 64패를 기록하며 단 1승 차로 운명이 갈렸다. 두산

넥센, 와일드카드 결정전 SK 제압...내일부터 두산과 준PO

은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하며 '올림픽 동메달리스트'의 심적 효과를 누렸다. 넥센은 상당한 박탈감에 시달렸고 마음 졸이며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러야 했다.

2년 전에도 두산이 넥센을 꺾고 웃었다. 2013년 정규시즌에서 넥센은 3위에 올라 4위 두산과 준플레이오프에서 만났다. 구단(2008년) 창단 후 처음으로 포스트시즌에 나선 넥센은 1, 2차전을 모두 승리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꿈꿨다. 그러나 두산이 독성을 발휘해 3승 2패로 전세를 뒤집었다. 0-3으로 뒤진 9회말 넥센 박병호가 동점 3점포를 쳐 동점을 만들었고도 연장 13

회초 5점을 내주며 5-8로 패한 5차전은 한국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다.

지난해는 넥센이 정규시즌 2위를 차지하고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는 사이 두산은 6위로 처져 가을 무대를 밟지 못했다.

정규시즌에서 양팀은 8승 8패로 맞섰다. 투수진보다 타선에 강점이 있는 양팀의 격려 때문 ~에 난타전이 자주 벌어졌다. 두산 타선은 넥센전에서 타율 0.319, 22홈런, 128타점을 기록했다. 넥센은 두산전에서 타율 0.296, 17홈런, 108타점을 올렸다. 정규시즌 성적은 타율 0.298, 203홈런을 친

넥센이 앞섰지만 맞대결에선 두산이 더 위력을 발휘했다.

두산은 니퍼트, 장원준, 유희관을 중심으로 선발진을 구성할 전망이다. 좌완 신예 이현호도 힘을 보탤 수 있다. 넥센은 앤디 밴헤켄, 라이언 피어밴드, 양훈으로 선발진을 꾸렸다. 밴헤켄이 와일드카드전에서 단길 걸 고려하면 두산 선발진이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다. 불펜은 조상우가 버티는 넥센 쪽에 힘이 실린다. 한편히, 손승락이 조상우와 함께 넥센 필승조로 땀을 두산은 함덕주·노경은·이현승으로 필승조를 구성할 전망이다.

두산과 넥센은 10일 잠실구장에서 준플레이오프 1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프리미어 12 대표팀 쿠바와 평가전

내달 4·5일 고척돔에서

프리미어 12에 나서는 한국 야구 대표팀이 '아미야구 최강' 쿠바와 고척 스카이돔에서 평가전을 치른다.

KBO는 8일 “한국 야구 대표팀이 프리미어 12 참가에 앞서 다음 달 4일과 5일 오후 6시 30분, 고척 스카이돔에서 쿠바 대표팀과 평가전을 한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KBO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후원한다. WBSC(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로부터 공인도 받았다. /연합뉴스

롯데 조원우 신임감독 선임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는 8일 이종운 감독을 경질하고 조원우(44) SK 와이번스 수석코치를 제1대 감독으로 선임했다.

조 신임 감독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금 3억원, 연봉 2억원 등 총 7억 원에 계약했다.

조 신임 감독은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1994년 쌍방울에 입단해 2008년 한화에서 은퇴할 때까지 15년간 통산 1368경기에 출전해 타율 0.292에 68홈런 443타점 123도루를 기록했다. 선수 시절 ‘돌격대장’이라는 별명답게 지질 좋 모

르는 근성을 보였고, '수비의 달인'이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은퇴 후에는 2009년부터 한화, 롯데, 두산 베이스, SK에서 코치로 활동했다. 특히 2011년 롯데 외야 수비코치로 재임시 '조야계약 프로야구 대상 프로코치상'을 수상했다.

구단은 “다양한 코치경험을 통해 지도력은 물론 선수단과의 소통 능력을 보였으며, 일체감이 부족한 현재 팀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선수단이 목표의식을 갖게 하는 리더십을 가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